

신한은행 '천군만마' 김애나

김단비 부재 속 부상 털고 코트 복귀
봄 농구 눈앞...완전체 출격 '청신호'



김애나

인천 신한은행은 '삼성생명 2021~2022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14승8패로 아산 우리은행과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다. 8경기를 남겨두고 4위에 6.5경기차로 앞서있어 플레이오프(PO) 진출은 확정적이다. 다만 정규리그 우승은 불가능해 PO를 통해 챔피언 트로피에 도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가드 김애나(27·168cm)의 부상 복귀는 신한은행의 PO 대비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요인이다.

김애나는 시즌 개막 이후 3경기 만에 발목을 다쳐 전열을 이탈한 채 장기간 쉬어야 했다. 다행히 12일 용인 삼성생명전에서 복귀를 신고했다. 20분여를 뛰며 6점·2리바운드·2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이어 16일 청주 KB스타전에선 24분여를 소화했고, 3점슛 2개를 포함해 12점·2리바운드·3어시스트로 좀더 나아진 경기력을 보여줬다.

신한은행은 현재 전력을 100%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에이스 김단비가 허벅지 부상 등으로 당분간 코트에 서지 못한다. 이경은, 이다연 등도 부상으로 쉬고 있다. 김애나의 복귀는 당장의 정규리그 잔여경기 소화에도 도움이 되지만, 부상자들이 대거 돌아올 PO에서 팀 전력을 업그레이드해줄 플러스 요소다.

김애나는 운동능력이 뛰어난 데다, 외곽슛 등 득점력까지 갖춘 가드다. 이번 시즌 5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평균 8.60점·4.2리바운드·3.0어시스트를 올리고 있다. 3점슛 성공률은 50%(8개 시도·4개 성공)에 달한다. 2점슛 성공률(22개 시도·11개 성공) 역시 50%다. 또 신한은행이 추구하는 빠른 공수전환에도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다. 정규리그 잔여경기를 통해 김애나가 경기력과 컨디션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면 신한은행의 '봄 농구' 전망은 한층 밝아질 수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5~8위 2.5경기차...불붙은 6강 PO 전쟁

공동5위 오른 DB-오리온 반격 채비
7위 LG, 마레이 활약속 중위권 가세
8위 가스공사 '니콜슨 복귀' 초읽기

올스타 휴식기를 마친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가 18일부터 후반기 레이스에 돌입한다. 6강 진입을 위한 순위경쟁이 본격화한다는 의의가 있다.

남자프로농구 플레이오프(PO)는 정규리그 1~2위가 4강에 직행하는 가운데 3위와 6위, 4위와 5위가 맞붙어 4강행 티켓을 가리는 구조다. 일단 PO에 돌입하면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진검승부가 펼쳐진다.

올 시즌에도 PO행 티켓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동 5위 원주 DB와 고양 오리온(이상 15승 16패), 8위 대구 한국가스공사(13승 19패)의 격차는 2.5경기에 불과하다. 아직 안심할 순 없지만, 5할을 웃도는 승률의 3위 안양 KGC(19승12패)와 4위 울산 현대모비스(18승14패)의 전력은 꽤 탄탄한 편이다. 결국 5, 6위 두 자리를 놓고 후반기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7위 창원 LG(14승18패)의 가파른 상승세와 가스공사의 부진이 맞물린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가 18일 재개된다. 5위부터 8위까지 2.5경기차라 6위까지 주어지는 '봄 농구' 티켓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공동 5위 DB 이상범 감독, 오리온 강동준 감독, 7위 LG 조성원 감독, 8위 가스공사 유도훈 감독(왼쪽부터)의 머리도 복잡할 수밖에 없다.

스포츠동아DB



결과이기도 하다. LG는 2라운드까지 6승12패의 부진에 허덕였지만, 3라운드 이후 8승6패로 선전하며 중위권 경쟁에 가세했다. 리바운드 1위(13.17개)에 올라 있는 외국인선수 아웹 마레이가 팀플레이에 녹아들면서 득점 루트를 다양화한 결과다. LG 조성원 감독도 "신뢰가 쌓이면서 이기는 경기도 많아졌다. 조직력을 더 다지면 충분히 6강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대로 가스공사는 경기당 24.6점을

올리며 이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앤드류 니콜슨의 부상 이탈 이후 10경기에서 2승8패로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걸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기간 팀플레이의 핵 차바위마저 손등 골절로 전열을 이탈한 탓에 정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나마 이들의 복귀가 멀지 않았다는 점이 다행스럽다. 얼마나 빠르게 승패의 마진을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DB와 오리온의 행보도 주목된다. 올

스타전 최우수선수(MVP) 허웅을 앞세운 DB는 김종규와 강상재의 높이가 살아나면서 빠르게 경기력을 회복했다. 4라운드 들어 3승1패로 상승세를 탄 비결도 여기에 있다. 4라운드 4경기에서 1승3패로 추종한 오리온은 3경기에서 평균 14분58초를 소화하며 4.7점을 올리는 데 그친 새 외국인선수 제임스 메이스가 하루빨리 공격력을 발휘해주길 바랄 뿐이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현대모비스 히트작 '99's' 이끄는 양동근 코치

현역시절 심장으로 불린 원클럽맨
1999년생 유망주 4인방 집중 코칭
“후배들에게 노하우 아낌없이 전수”

울산 현대모비스는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를 치르면서 이른바 '99's'라는 히트상품을 내놓았다. 1999년생 동갑내기 유망주들로 구성된 '99's'는 현대모비스의 현재이자 미래다. 고교 졸업과 동시에 곧장 프로행을 결정한 서명진을 필두로 프로 2년차가 된 이우석, 이번 시즌 신인 신민석, 김동준 등이다. 이들은 코트 안팎에서 절묘한 호흡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들의 개인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이는



현대모비스는 올 시즌 '99's'라는 히트상품을 앞세워 험난했던 리빌딩의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1999년생 4총사가 팀의 대들보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들을 지도하는 양동근 코치의 보람도 크다. 한 자리에 모인 이우석, 김동준, 양 코치, 서명진, 신민석(왼쪽부터).

사진제공 | 현대모비스

현역 시절 현대모비스의 심장코치로 불린 양동근 코치(41)다. 양 코치는 현대모비스 원클럽 맨으로 팀의 역사와 함께한 인물이다. 1년간의 미국연수를 마치고 지난해 여

름 코치로 부임한 그는 '99's'와 함께 이번 시즌을 보내고 있다. KBL 무대에서 포인트가드로 한 시대를 풍미한 양 코치는 후배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

하며 성장을 돕고 있다.

양 코치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선수들이지만 훈련에 열정을 갖고 있어 함께 운동하는 게 즐겁다”며 “내가 가르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선수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열심히 잘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에게 개인훈련을 강요하진 않는다. 스스로 필요해서 움직이면 내가 아는 만큼은 다 전해주려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팀 젊은 선수들이 하나라도 더 해보겠다는 의지가 좋다”고 칭찬했다.

현대모비스는 양 코치의 은퇴 이후 리빌딩에 들어가는 등 험악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양 코치가 맡은 포인트가드 포지션에서 대체자를 찾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다. 그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하는 선수들이 '99's'에 다수 포함돼 있다. 그래서 양 코치와 '99's'의 만남은 더 의미가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전기세가 확실하게 절감되는 센추리 초강력 인버터 냉·난방기



eco

사업자등록증 OK
36개월 분납가능

45년 전통의 업소용 전문업체

(상가, 사무실, 공장, 식당, 교회 등)



냉난방기 구입시 꼭 확인하세요!!

냉난방기 구매하신 장기 36개월 할부는 초기비용 부담없이 무보로 무담보로 사업자 등록증만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전기세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 냉방·난방 평수가 똑같은지? / 45년동안 고집스럽게 냉난방기를 만든회사인지?? 초기비용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36개월 분할납부가 되는지? / 빠른 설치와 A/S가 되는지??

센추리 공식 판매처 (주) 센추리에어컨

제품구입 무료전화 **080-965-7777**